

싱어송라이터 최정윤, '감정 레일' 깔고 덜컹거리림 없이 나아갑니다

6년3개월 만에 발매한 새 EP '이모셔널 트레인' 호평
감정 폭탄처럼 던진 음반... "홀가분" 새로운 '유니버스'

친근함과 위엄은 다르다. 싱어송라이터 최정윤은 대중성을 감안하면서도,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미학적인 만듦새에 허점(虛點)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의 대표곡들인 '사라져', '달라', '댄스 위드 미 베이비(Dance with me baby)', '실리 러브 송(Silly Love Song)' 등은 따라 부르기 쉬운 곡들이지만 완성도 측면에선 평가절하 당할 곡들은 아니다.

최정윤이 최근 발매한 새 EP '이모셔널 트레인(Emotional Train)'은 그녀의 음악적 내공을 새삼 증명한다. 2017년 2월 첫 EP '임브레이스(Embrace)' 이후 무려 6년3개월 만에 내는 두 번째 EP. 흐릿한 감정들은 최정윤의 과감한 노랫말과 서정적 멜로디를 타고 분명함을 깨어난다. 이 '감성적인 기차'라는 제목을 단 음반의 곡들은 최정윤의 감정·경험·고민을 레일로 깔고, 청자와 공감대를 넓히며 음악 오류에 대한 덜컹거리림 없이 나아간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최정윤의 매력이다. '이모셔널 트레인' 곡들은 감정의 개별 여행에서 보편성의 일상으로 흘러 들어간다.

특히 '이모셔널 트레인'은 최정윤 '유니버스(Yoon:iverse)'의 꼭짓점이 된다. 한 없이 나아간 우리와 어설플 희망을 위해 음악이 있다. 최정윤이 그걸 부른다. 청량한 음성으로 주로 여름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목소리에서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듣는다. 최근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에서 만난 최정윤은 "너무 잘 나온 EP라 뿌듯하고 좋아요. 무엇보다 저 스스로 위로 받은 음반"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그녀와 나눈 일문일답.

-싱글은 계속 내왔지만 두 번째 EP가 무려 6년3개월 만에 나왔어요.

"늘 앨범 단위로 생각을 하고 음원을 만들

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싱글을 먼저 내고 앨범을 내자는 의견이 주변에 많았어요. 근데 그 싱글들이 다 음반의 타이틀곡으로 썼던 곡들이었거든요. EP를 내려고 하면 타이틀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늦었어요. 아무래도 정규는 뮤지션들의 로망이죠. 지금 당장 정규를 내기는 힘들 것 같고, 조금 더 EP를 낸 뒤 내공이 생기면 더 큰 단위의 음반을 내고 싶어요."

-내공을 말씀하셨는데 전 정윤 씨 음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력보다 외모가 먼저 눈에 띄는 지점도 있고 동세대 싱어송라이터들보다 음악적인 부분을 덜 주목받아 뮤지션으로서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엔 '사라져'가 크죠. 이 노래 때문에 제가 많이 알려졌어요. 얼핏 듣기엔 쉬워 보이는 노래인데 사실 편곡·코디·작곡·작사 측면에서 쉽지 않은 곡이거든요. 또 귀여운 이미지에 친근하게 다가가다 보니 음악적인 것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봐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앨범의 만족도가 높다는 건 그간 갈급했던 부분들이 해소됐다는 건가요?

"싱글을 낼 때는 다른 분들 의견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번에 내고 싶었던 곡을 다섯 곡 모두 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제 이야기를 한번에 다 마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타이틀곡 '싫은 점'은 곡 피처링이 필요했던 곡인가요?

"예전에 기리보이 님의 '투투(22)' 피처링

을 했는데, 이후에 기리보이 님이 피처링하실 수 있는 제 곡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곡 분위기 자체를 기리보이 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라 기리보이 님이 피처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 분이 꼭 들어와야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 솔직함으로 인해 스스로 위로를 받은 부분이 있나요?

"네. 부를 때마다 울컹해요. '너무 밀바다'의 모습인데, 그걸 들려드리면서 감정에 몰입하다 보니까 울컹하기도 하고 살짝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곡에 플루겔 호른을 쓴 이유를 묻자) 제가 원래 브라스를 좋아하는데 트럼펫 같은 경우엔 제가 듣기엔 세요. 플루겔호른은 조금 더 따뜻한 소리가 나서 이번 노래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싱어송라이터로서 삶은 만족하나요?

"이번 EP를 내고 만족하게 됐어요. 이전까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특히 '사라져'가 대중에게 임팩트가 너무 강렬해서 그런 노래를 '계속 써야 하나'라는 압박도 컸죠. 저는 사실 그런 노래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나는 아직 많이 불안해' 같은 차분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사라져' 같은 곡을 쓰게 됐는데 그게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이런 음악을 더 이상 쓰지 못하면 음악을 그만해야 하나 같은 생각도 들었죠. '댄스 위드 미 베이비', '실리 러브 송' 같은 곡은 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온전히 제 감성에 의해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곡을 쓸 때마다 템포, 드럼비트 등을 계산하면서 '나는 어디 있지'라는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EP를 내면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번 앨범이 저'예요."

-앞으로 또 다른 고민들을 맞이하겠지만 뮤지션 최정윤, 인간 최정윤으로서 더 의견



하게 대처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용기가 생긴 거 같아요. 이것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요."

-'감정 폭탄'을 던져서 '멘털 방패'를 얻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오히려 제가 위로를 더 많이 받은 앨범이에요. 온라인에 이번 앨범 관련 악플이 몇 개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어떡하지'

라며 안절부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짜라고 내가 좋다는데. 뭐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하. 무엇보다 타격감이 없어졌다고 할까요. 또 예전엔 공연에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했는데 '오시는 분들처럼 재밌게 놀아야지'라는 생각부터 이제 들더라고요. 갑자기 풀렸어요! 또 이번 EP를 내고 좀 쉬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내고 나니까 '다음 노래 뭐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전엔 곡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많이 고민하며 힘들어했는데, 흥미부터 듭니다."

뉴스스



트와이스, 美 앨범 판매량 100만장 ↑

K팝 걸그룹 최초

'트와이스'가 K팝 걸그룹 최초 미국 내 앨범 판매량 100만 장 돌파 기록을 세웠다.

10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미국 내 피지컬 및 디지털 앨범 판매량 합산 100만 장을 넘기며 'K팝 걸그룹 최초' 기록을 추가했다.

앞서 트와이스는 지난 3월10일 발매한 미니 12집 '레디 투 비(READY TO BE)'로 같은 달 25일 자(이하 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2위를 차지했다. 이 음반은 9주 연속 랭크인했다. 특히 '레디 투 비' 앨범과 스트리밍 합계 판매량이 15만3000장을 돌파해 K팝 걸그룹 중 역대 최고 판매량 기록을 경신했다.

트와이스는 지난 2020년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유니버설 뮤직 산하 빌보드 선정 미국 톱 레이블인 리퍼블릭 레코드와 전략적 협업을 체결했다.

이런 전략이 현재 진행 중인 다섯 번째 월드 투어 '레디 투 비' 규모에도 영향을 끼쳤다. 트

와이스는 이달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시애틀, 댈러스, 휴스턴, 시카고, 캐나다 토론토, 미국 뉴욕, 애틀랜타 등을 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소피아 스타디움 입성과 함께 매진 기록을 달성했다. 소피아 스타디움은 2019년 트와이스 데뷔 첫 미국 단독 콘서트 가 열린 기아 포럼과 비교해 크기와 규모가 4배 이상 상회하는 공간이다. 준공비만 49억 달러(한화 약 5조 7000억 원)에 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경기장이라 불린다. 글로벌 슈퍼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공연한 곳인데 트와이스는 이곳에서 K팝 걸그룹 최초 단독 콘서트를 연다. 미국 9개 도시 대장정의 첫 시작점이기도 하다.

오는 9월에도 싱가포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태국 방콕, 필리핀 불라칸 등에서도 다섯 번째 월드 투어를 이어간다. 이중 싱가포르 공연은 당초 9월2일 1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예매 오픈 이후 단숨에 매진돼 1회 공연을 추가했다. 해당 공연 티켓 역시 빠른 속도로 동나며 솔드아웃을 달성했다. 이번 투어는 22개 지역 36회 규모다.

엑소, 첸백시·SM 분쟁 가운데도 완전체 컴백...7월 정규 7집

2018년 12월 정규 5집 리패키지 '러브샷' 이후 4년8개월 만

한류 그룹 '엑소(EXO)'가 유닛 첸백시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컴백한다.

K팝 업계와 SM엔터테인먼트 등에 따르면, 엑소는 오는 7월10일 정규 7집을 발매한다. 멤버 카이가 예상보다 빨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를 하게 되면서 활동은 8인 완전체가 힘들다. 하지만 카이가 음반 작업에 참여한 만큼 완전체 불라도 무방한 음반이다.

엑소의 완전체 활동은 지난 2018년 12월 정규 5집 리패키지 '러브샷' 이후 4년8개월 만이다. 2019년 11월 정규 6집 '옵세션(OBSESSION)', 2021년 6월 스페셜 앨범 '돈't 파이트 더 필링(DON'T FIGHT THE FEELING)'은 일부 멤버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2.5세대 K팝 그룹인 엑소는 3세대 K팝 그룹부터 본격화된 세계관의 시초를 다진 팀으로 평가 받는다. 2013년부터 정규 앨범 5장 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물론 중국어 버전 앨

범 또는 리패키지 앨범을 합한 누적 판매량이지만(2001년 이후 단일 앨범으로 100만장을 돌파한 건 2017년 방탄소년단이 처음) 팬덤을 기반으로 3·4세대 K팝 그룹의 음반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엑소가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멤버들이 교복을 입고 세련된 멜로디에 맞춰 오차도 없는 칼군무를 추는 '오르렁'(2013)은 K팝 그룹의 퍼포먼스의 격을 한 단계 높인 K팝 역사에 기념비적인 같은 곡이다. 원데이크 형식으로 촬영한 '오르렁' 뮤직비디오는 댄스 영화를 보는 듯한 감각적인 영상미로 호평을 받았다. 이후 발표한 '중독' '콜 미 베이비' '러브 미 라이트' '코코넛' '템포' '러브샷' 등 역시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인정 받았다. 데뷔 당시 12인로 출발했으나 중국인 멤버들이 모두 이탈하면서 8인조가 완전체가 됐다. 그런데 첸백시로 묶이는 백현·시우민·첸이 최근 SM에 전속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이번



새 앨범 발매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양 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엑소 브랜드를 계속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해 컴백이 가능한 것으로 추측된다. 첸백시는 SM과 갈등을 겪는 가운데도 엑소 신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 팀 자체 웹 리얼리티 예능도 녹화했다.

스트레이 키즈 정규 3집, 英 앨범차트 40위...자체 최고



역대 K팝 초동(발매일 기준 일주일 동안의 음반 판매량) 기록을 다시 쓴 대세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스키즈)가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자체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9일(현지시간)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스트

레이 키즈가 지난 2일 발매한 세 번째 정규 앨범 '★★★★(5-STAR)'(파이브스타)는 이번 주 앨범 톱100(9-15일)에서 40위를 차지했다. 해당 차트 스트레이 키즈 자체 최고 성적이다.

또 '파이브 스타'는 오피셜 앨범 차트에 진입한 스트레이 키즈의 세 번째 앨범이다. 앞서 미니 7집 '맥시던트(MAXIDENT)'(최고 성적 85위), '미니 6집 '오디너리(ODDINARY)'(최고 성적 95위)가 해당 차트에 들었다.

스트레이 키즈는 K팝 대표 그룹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에 이어 해당 차트에 세 개 이상의 앨범을 올린 K팝 팀이 됐다.

특히 '파이브스타'는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되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

선 1위가 확실하다. 이 음반은 총동 461만7499장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기록을 썼다.

이와 함께 스트레이 키즈는 '파이브 스타'의 타이틀 곡 '특(S-Class)'으로 이번 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00위로 데뷔했다. '특'은 스트레이 키즈의 오피셜 싱글 톱 100 두 번째 진입 곡이다. 앞서 '오디너리' 타이틀곡 '매니아(MANIAC)'이 해당 차트에서 98위를 찍었다.

한편 영미권 싱글차트에 균열을 내고 있는 K팝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큐피드(Twin Ver.)'가 이번 주 오피셜 싱글차트에서 11위를 기록했다. 지난주 9위에서 2계단 하락한 11위를 기록했지만 11주 연속 진입에 성공했다.